

비수기 없는 골프 호황에 골프산업 '고공행진'

지난해 광주 골프장 이용 11.6회...15개 시·도 가운데 1위

광주·전남 스포츠 매출 5719억원...골프 용품 매출 급증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외활동이 급감하면서도 골프 호황은 지속되고 있다. 겨울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연휴 골프장 매회가 잇따르고 있으며, 스크린 골프장과 골프 상품 등 관련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일 이종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의 '코로나19 이후 광주전남지역 소비행태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골프장 연평균 이용 횟수는 11.6회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 8.8회에 비해 31.8%(2.8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지역별 골프장 평균 이용 횟수는 광주가 가장 많았고, 제주(10.6회), 대전(10.4회), 경기(10.2회), 경남(10.1회)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9.5회로 전국 6번째를 차지했고, 대구(9.0회), 울산(8.7회), 전북(7.8회), 강원·충남(각 7.6회), 경북(6.9회), 충북(6.8회), 부산(6.6회), 인천(5.6회)이 뒤를 이었다.

골프의 인기 상승은 의류와 오락·문화 등 외부 활동 관련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스포츠·오락·여가 부문 신용카드 결제액을 살펴보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 2020년 이용액은 2019년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해 들어서는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광주·전남 스포츠·오락·여가 신용카드 결제액(1~10월 기준)은 지난 2019년 5463억원에서 이듬해 5043억원으로 7.7%(-42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골프 대중화에 힘입어 2021년에는 5719억원으로,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해 4.7%(256억원) 성장을 거뒀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광주 신용카드 총 결제액

은 2019년보다 3.4% 줄었고, 스포츠·오락·여가 부문 역시 8.4% 줄며 동반 감소했다.

40개 골프장이 영업 중인 전남의 경우 신용카드 총 결제액이 2년 새 4.7% 증가할 동안 스포츠·오락 부문은 14.3%나 급증했다.

골프를 즐기는 지역민이 늘수록 골프 용품과 의류 등 관련 상품 매출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광주신세계의 골프 관련 상품 매출은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같은 해 23.7% 매출이 늘었다.

지난달 중순까지 진행된 첫 정기세일에서는 골프 매출이 광주신세계는 65%,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42.7% 늘어 한겨울에도 여전한 골프 인기를 입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마트, 영업시간 1시간 단축

28일까지 밤 10시까지 영업

광주 3개·전남 3개 이마트가 이달 말까지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전남 6곳을 포함한 전국 117개 이마트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밤 11시였던 영업종료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한다.

이는 롯데마트(밤 11시 종료)나 홈플러스(광주·자정·전남 일부 밤 11시 종료) 등 대형마트 업계 중 첫 영업단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이마트지부는 지난해 26일 이마트 봉선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92만원에 불과한 기본급 정상화와 함께 밤 10시 폐점으로 최소한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달라"며 사측에 촉구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은행 '어린이 시장투어' 진행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과 임직원, 지역 어린이들은 최근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을 보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5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명절마다 어린이들과 '힘내요 전통시장 어린이 시장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코로나 뚫고 광주 3개 백화점 연매출 1조원 눈앞

전년보다 19.2% 증가

지난해 광주지역 3개 백화점 매출이 전년보다 19% 증가하며 연매출 1조원을 코앞에 뒀다.

2일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백화점 매출은 9999억5600만원으로, 전년(8392억원)보다 19.2%(1608억원) 증가했다.

광주 백화점들의 매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 22.8%를 밑돌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이 새로 들어선 대전이 39.4%로 가장 높았다.

서울(24.6%)이 뒤를 이었고, 경기(22.7%), 대구(20.5%), 부산(20.2%), 광주(19.2%), 경남(11.9%), 울산(11.3%) 등 순이었다.

(주)광주신세계의 지난해달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누계 총매출액은 4646억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16.3% 증가했다.

광주 백화점들은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지난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5.0%(-443억원) 감소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역 10개 대형마트 매출은 7801억6100만원으로, 전년(7662억원)보다 1.8%(139억원)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

수출 농산물 안전성 부적합률 12.9 → 6.2% 감소

전남 농관원, 265건 조사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방안 협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해 수출 농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률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수출농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률은 6.2%로, 전년(12.9%)보다 절반 가량 감소했다.

전남 농관원은 수출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지난 2020년 295건, 2021년 265건 벌였다.

지난달 26일에는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에서 담양 흥공 수출용 딸기 재배 작목회와 함께 '수출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작목회는 올해 처음 수출용 딸기를 재배한다.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협의회'에는 농관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남도 농업기술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광주·전남지역 수출농산물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수출국가별 안전한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해 업무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전남 농관원은 사전조사를 벌여 부적합이 다수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부적합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배방지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있다.

또 재배단지에 수출조사 현황과 국가별·품목별·부적합 성분별 안전관리 현황, 수출국별 농약안전 사용 기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지역 딸기는 지난해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으로 수출됐다. 딸기의 경우 응애류, 진딧물,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수출 국가별 사용가능한 대체농약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황규광 전남지원장은 "수출 품목 재배농가는 수출대상국별로 등록된 농약과 잔류 허용기준이 다르다"며 "생산 초기부터 수출대상국 안전기준에 맞춰 관리하고 내수용·수출용 농산물을 분리해 재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지난해 26억원 보이스포싱 예방

농협 전남지역본부부는 지난해 223건의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벌여 26억원 상당 고객 돈을 지켜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농협은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상시적으로 벌이고 있다.

농·축협 모든 영업점은 피해예방 안내문을 붙이고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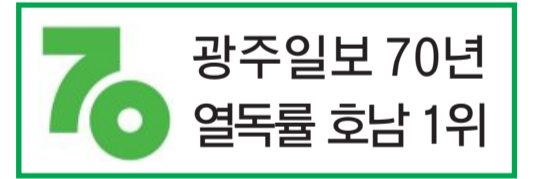
최근 고흥농협 흥양지점은 80대 고객이 경찰을 사칭한 수법에 속아 1000만원을 넘기려했던 사건을 막았다. 피해를 예방한 직원은 고흥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손실보

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 문자가 부쩍 늘었다"고 경고했다.

또 "신용등급 상황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노린 문자도 여전히 많다"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홈페이지 위치(URL)나 전화 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는 절대 누르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